

아시아 첫 EPL 공격포인트 100 '기록 제조기' 손흥민



볼 쟁탈전 영국 세필드 브래클 레인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홉스퍼 대 세필드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손흥민(왼쪽)이 세필드의 골키퍼 에런 램즈데일(오른쪽)과 볼을 두고 있다. /연합뉴스

세필드전 전반 코너킥으로 선제골 도와...통산 65골·35도움
2경기 연속 골대 불운...토트넘, 45년만에 세필드 3-1 제압

손흥민(29·토트넘)이 도움을 추가하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통산 100번째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두 경기 연속 골대에 가로막혀 득점포는 터지지 않았다.
손흥민은 17일 열린 세필드 유나이티드와의 2020-2021 EPL 1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5분 코너킥으로 세르주 오리에의 헤딩 선제골을 도왔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리그 18번째(12골 6도움), 공식전을 통틀어서는 25번째(16골 9도움) 공격 포인트다.
이 도움으로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EPL에 진출한 이후 정규리그 65골 35도움을 기록, 리그 통산 공격 포인트 100개도 채웠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옵타에 따르면 EPL 공격 포인트 100개는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이자, 토트넘 소속 선수로는 7번째 기록이다.
손흥민이 발판을 놓은 선제골을 필두로 토트넘은 세필드를 3-1로 제압, 리그 4경기 무패(2승 2무)를 이어가며 4위(승점 33)로 올라섰다.
토트넘은 세필드와의 리그 원정 경기에서 3무 4패의 극심한 부진을 보이던 8경기 만에, 기간으로는 1975년 12월 이후 약 45년 만에 값진 승점 3을 따냈다.
지난 라운드 하위권 팀인 풀럼과 무승부에 그친

데다 세필드 원정에서 유독 고전해온 터라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토트넘은 손흥민-케인-스테번 베르흐베인의 선발 스리톱을 앞세워 초반부터 몰아붙였다.
전반 4분 케인과 패스를 주고받은 베르흐베인의 페널티 아크 오른쪽 오른쪽 슛이 상대 에런 램즈데일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이어진 왼쪽 코너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선 손흥민이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고, 오리에가 골 지역 안에서 뛰어오르며 머리로 받은 공이 골 그물을 흔들며 선제골이 됐다.
손흥민은 전반 8분 케인의 패스를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절묘한 칩슛으로 연결해 직접 골문을 노렸으나 골대를 맞혀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풀럼전에 이어 또 한 번의 '골대 불운'이었다.
팀이 두 골 차 리드를 지키며 후반 추가시간에 접어들 뒤 손흥민은 카를루스 비니시우스와 교체됐다.
/연합뉴스

'캡틴' 광양루니 "승적 선물하겠다"

전남드래곤즈 주장에 이종호...부주장 이후권·김현욱·박찬용 선임

돌아온 '광양루니' 이종호(사진)가 2021시즌 주장 완장을 차고 댈다.
전남드래곤즈가 올 시즌 주장으로 이종호를 선임했다. 이후권, 김현욱, 박찬용은 부주장으로 이종호를 돕는다.
이종호는 지난해 5년 만에 친정팀 전남으로 복귀해 부주장으로 팀 내 가고 역할을 수행했다. 올 시즌에는 주장으로 그라운드 안팎에서 팀의 승격을 이끌게 된다.
이종호는 "전남드래곤즈 유스 출신 주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 작년에는 비록 승격에 실패했지만, 올해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주장단이 앞장서서 더 열심히 하겠다"며 "작년에 무관중 경기가 많아서 많은 팬이 2021시즌을 기다리실 텐

데 동계훈련 기간 착실히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력과 성적을 선물해 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 시즌에 이어 2년 연속 부주장 역할을 수행하는 이후권은 "올해도 젊고 능력있는 선수들이 도전을 위해 팀을 떠났는데 팬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매년 정든 선수들이 나가면서 팬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다"며 "우리가 성적을 잘 내면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들이 팀에 오래 있을 수 있고, 떠났던 선수들도 돌아와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좋은 선수가 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젊어진 선수단에서 선·후배 가교역할을 맡게 된 김현욱은 "선·후배 사이에서 편안하고 스스럼없이 다가갈 수 있는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며 "지난 시

즌 팬들이 저희보다 더 아쉬워하셨을 텐데 올해는 코로나19가 얼른 종식되고 저희도 준비를 잘해서 경기장에서 팬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2020시즌 '짚물수비'의 핵이었던 박찬용은 "부주장 중 막내로서 주장과 다른 부주장들을 잘 보좌하고, 팀 내에서 격려와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팀이 승리하고 나아가 승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며 "지역 출신으로서 팀의 모범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 팬들이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은 오는 30일까지 광양에서 1차 동계훈련을 진행한 뒤 2월 1일 남해로 이동해 16일까지 2차 동계훈련을 실시한다. /김여울 기자 wool@



케빈 나, 짜릿한 역전 'PGA 5승'

소니오픈 21언더파 259타...이경훈 공동 19위·임성재 공동 56위

재미교포 케빈 나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5승을 달성했다.
케빈 나 18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파70·7044야드)에서 열린 소니오픈(총상금 66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6개를 잡아내고 보기는 1개로 막아 5타를 줄였다.
최종합계 21언더파 259타를 기록한 케빈 나 18일은 크리스 커크(미국), 호아킨 니만(칠레·이상 20언더파 260타)을 한 타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118만 8000달러(약 13억1100만원)다.
케빈 나 2019년 10월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 이후 1년 3개월 만에 승수를 추가, PGA 투어 통산 5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그는 2017-2018시즌이던 2018년 7월 밀리터리 트리뷰트부터 네 시즌 연속 1승씩을 쌓았다.
케빈 나 18일은 브랜던 스틸(미국)에게 두 타 뒤진 공동 2위로 이날 4라운드를 시작해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한때 공동 2위에서도 밀렸던 케빈 나 13번 홀(파4) 버디로 반전에 성공했다.
이어 14번 홀(파4)에서 스틸이 어프로치샷 실수로 보기를 적어낸 사이 케빈 나 18일은 버디를 추가하며 4명의 공동 선두에 합류했고, 15번 홀(파5)에서도 한 타를 더 줄여 단독 선두로 도약했다.
두 조 앞의 커크가 마지막 18번 홀(파5) 버디로 20언더파 공동 선두로 먼저 경기를 마친 가운데 케빈 나 18번 홀 세 번째 샷을 50cm



가량에 붙인 뒤 버디를 잡아내 우승을 확정 지었다.
우승 뒤 인터뷰에서 케빈 나 18일은 한국어로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언젠가 또 한국에서 뵈겠다"며 한국 팬에게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한국 선수 중엔 이경훈이 15언더파 265타, 공동 19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김시우는 공동 25위(14언더파 266타), 임성재는 공동 56위(9언더파 271타)에 자리했다. 최경주는 71위(5언더파 275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입국' 터커·멩덴 "을 KIA 기대해주세요"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선수 프레스턴 터커(왼쪽)와 대니얼 멩덴이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올 시즌 각오를 다지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BO, 유소년 홈트레이닝 영상 제작

부상방지·회복·근력강화 프로그램 등 유튜브에 22일까지 업로드

KBO가 유소년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체력·운동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홈트레이닝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통해 제작된 이번 교육 영상은 ▲부상방지 프로그램 ▲회복 프로그램 ▲근력강화 프로그램 ▲트랙&필드 프로그램 ▲야구 기능성 트레이닝 등 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KBO 공식 유튜브 채널에 18일부터 5일간 업로드 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 영상은 미국 스포츠 의학 단체의 트레이닝 시스템, 미국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의 트랙&필드 훈련 시스템, 호주치료사협회 스포츠피지오 과정의 재활운동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제작했다.
또 야구 선수 트레이닝 경험이 풍부한 트레이

너, 치료사, 스트렝스 코치, 크로스핏 코치, 요가 인스트럭터, 필라테스 인스트럭터는 물론 두산 베어스 김강률·김민혁, 삼성 라이온즈 심장민 등 KBO 리그 현역 선수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훈련의 실용성을 높였다.
KBO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동계 기간 부족한 현장 훈련을 보완하고 유소년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야구에 필요한 체력과 운동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홈트레이닝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미래 KBO 리그의 주역이 될 유소년 선수들이 올바른 훈련과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